식민지 시대의 수의교육기관들

이시영
전 한국마사회 경주마보건원장

편집자주) "한국수의학 발달사"는 지난 한국의 수의학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본지 지난 2000년 3월호(제36권 제3호)부터 2002년 6월호(제38권 제6호)까지 총 12회의 원고가 게재된바 있으며, 2008년 10월호부터 이어서 연재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축위생상태의 무지

고려시대 수의(獸醫)라는 용어로 가축의 질병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등장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서 마의(馬醫)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의가 되었던 수의가 되었던 가축의 질병치료의 기능이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 단지 말을 국방용으로 중요시하다 보니 그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조선조에서도 일반가축의 치료는 수의가 담당하였다. 당시는 그런대로 수의의 양성체제가 있기도 하였다. 말기에는 세습직(世襲職)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교육제도가 허물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선조 후반기 혹은 대한제국시대의 수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각종 가축질병의 천국이 되었다.

당시의 가축위생 상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정부상태라 할 정도로 문란하였다. 체계나 제도도 없었다. 과거의 마의 위주의 수의정책도 사라진지 오래다. 수의사의양성제도라는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장간을 경영하는 자. 우마상인, 마방(말 여관)주인, 주막 주인, 마부들이 부업으로 가축의 질병 치료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수의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전이나 전설과 같은 방법으로 전통의술을 배웠으며 수술이라고 해 봤자 겨우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사혈(瀉血) 정도와 소락(燒烙) 정도였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부는 남용이나 오용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약품이라고는 한약재(韓藥材)가 전부이었다. 이들을 소위 우의(牛醫)라 칭했는데 전국에 걸쳐 약 2500여명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었기에 서양의 새로운 수의기술을 무장하고 이 땅에 들어 온 일본의 수의사들의 눈에는 한심스러웠을 것이다.

당시 전통수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朝鮮の農業發達史"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그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소 부풀린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자

존심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현대수의학적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는 가축위생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일반위생에 대해서도 당시의 민중의 지식은 실로 놀랄 정도로 저급의 수준이었으며, 안전(安全)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당시의 우역(牛疫)의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보면 대개가 다음의 일곱 가지가 매개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것을 일본인 조사관(時重박사)들이 알았다. 1902년(명치35년) 우역이 대유행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병든 소의 도살해체였다는 지적하고 있다. 우역을 전파시키는 일곱 가지 원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우(病牛) 혹은 감염우의 도살해체할 경우
2. 병우나 감염우 혹은 폐사우의 내장장기를 야외에 방치하는 경우
3. 병우 및 감염우를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4. 병든 소의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5. 병든 소나 감염우가 자유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
6. 병우를 산야에 방치하는 경우
7. 소독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병수(病獸)를 치료할 때는 현대 수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가 먼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우역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병우에 대해서 죽(粥)이나 배(梨)를 갈아서 먹이든가 약으로서는 마늘(蒜;산) 초(酢) 기름(油)을 섞은 것을 다려서 먹이든가 계란을 먹이기도 한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산야에 버려두고 죽게 되면 가죽을 베끼고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 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당시의 수의사는 우역에 걸린 소에게 네다리와 꼬리에 침을 찔러서 피를 뽑고 다음의 의약품을 사용한다. 竹葉 瓢裡 鼠目 太太甲 靑長米 人冬木 春麥의 7가지를 큰 솥에 넣고 물 2말을 부어서 끓여서 1말이 될 때에 이를 병우의 입으로 부어 넣는다. 이들 7종의 합제는 우역을 사람의 열병(熱病)과 동일시해서 해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복부가 팽창한 소가 있으면 우의(牛醫)는 입안과 꼬리에 침을 놓고 혀에 식염을 도말하며 참기름 4홉을 마시게 하고 야간에 다시 동량의 참기름을 더 마시게 하며 피마자유를 주기도 한다. 이러면 다음날 점차 회복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우역이 아니고 고창증과 같은 증세일 것이다.

국가에서 수의제도가 없기에 우의가 없는 곳에서 소가 병이 나면 주민 중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옛날 노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그들은 대개 3-4본의 철침(鐵針)이나 소도(小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병이 든 소를 보면 먼저 꼬리를 위로 들어 올려 꼬리 밑의 피부의 상태를 보아서 발열의 상태를 알고 눈과 코에 이르기까지 전

신을 진찰하여 내부의 병이라고 인정되면 소주나 참기름을 주고 외부적이라면 절개하거나 혹은 침을 찔러서 피를 뽑거나 고름을 뽑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부위에 식염이나 된장 혹은 간장을 발라 둔다 이는 당시 우의 또는 수의사의 진료의 방법을 기록한 내용 들이다.

중국과 인근지역인 두만강과 압록강의 연안에서는 매년 우역으로 인한 피해가 큼으로 이의 대책으로 수의사를 지방에 파견한다. 1908년(융희 2년: 명치 41년) 대한제국 정부는 수역이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함경북도에 현대 수의학을 공부한 수의 1명(原島 수의사)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지방에 수의사를 배치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수의사는 경찰관과 협조하여 우역의 예방업무에 종사하였다. 그 후 각지에 수의사를 증가배치하여 가축의 건강진단, 병성감정, 병우의 박살, 격리, 교통차단, 치료, 각종 주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의 가축전염병의 방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2. 현대 수의기술 보급 강습

1) 수의강습회

조선총독부는 1915년(대정 4년 4월)에 제령 제1호로서 수역예방령(獸疫豫防令)을 공포하였으며 7월에는 수역예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8월에는 수역예방심득을 고시하여 병수의 조기 발견, 병독전파의 방지, 예방액 또는 면역혈청의 주사 등 법령의 준거하여 방역의 철저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해인 1916년부터 전국적으로 약 2,500여 명에 달하는 소위 전통 우의라는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에게 현대 수의학적 지식을 보급하여 가축의 방역업무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중 하나가 수의강습회라는 이름으로 현대 수의학을 보급하는 계획이다.

수의강습회는 당시 행정기구상 수의를 총괄하는 경무총감부 위생과에서 실시한다. 기록에 의하면 1917년 11월 5일에서부터 8일간 각도 경무부 헌병대 소속 수의의 강습회를 총감부에서 직접 개최하였다.

과목은 도수(屠獸) 검사법, 세균검사방법, 우유검사법의 3개항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하였다. 이는 당시 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강습회는 이후 총독부에서 자주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주둔군사령부나 19사단 혹은 20사단에서는 매월 수의단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말에 관한 것 이외에도 수육검사방법과 같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2) 우의강습회

당시 일본의 서구수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가축위생상황은 그야말로 가축전염병 천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수의기술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기에 총독부에서는

각도장관에게 공문을 내어서 각 도의 축산조합의 수의로 하여금 순회 진료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즉 1915년(대정 4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관 명의로 각도장관에게 축산조합의 수의사들에게 지방에 순회 진료를 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당장 서구 수의사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기에 이들 전통 우의들을 강습회를 통해서 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름 하여 우의(牛醫)강습회 혹은 축산 강습회 등으로서 정식 수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가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 우의를 활용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략 약 2500여명의 전통우의들이 있었으나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품성이나 기술 등을 고려해 엄선하여 대략 1주일정도 집체교육을 시켜 배출시키기도 하였다. 초기 때의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약 2년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일단 중도에서 더 이상 이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초기에는 농사 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축산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한 예를 들면 경상북도농사강습회 상황이라는 것이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리고 있다.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농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 주요과목으로서는 작물 비료 축산 양잠 등인데 강사로서는 농사순회교사 등과 축산조합의 수의 瀨川?兵衛라는 이름이 있다. 분명히 그는 축산학 강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가축위생분야를 강의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농사강습회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조선총독부 관보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조선농회보의 잡보(雜報)의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축산강습회 또는 농사강습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의강습회와는 달리 축산이나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수의학대의(獸醫學大意: 수의학개요) 정도를 가르쳤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축우의 개량증식을 하여야만 일본인들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공급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소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대책이었다. 그들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한 후에 그들의 착취의 결과로 한반도에는 엄청나게 축산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한우만 하더라도 1911년도에 90만두를 헤아리던 것이 불과 5년만인 1916년도에는 135만두로 늘어났다.

매년 중국으로부터 우역이나 다른 전염병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방역당국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그러한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자 소의 개체질병을 다루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소에 대하여 치료를 전담할 수의사는 별로 없었다. 당시 일본인 수의사가 한반도에 들어 온 숫자는 아직도 미미하기에 기존의 전통수의사를 활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는 농업기술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우의의 양성을 할 것을 주문한다. 이 회의는 191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인데 다른 도에서도 확대하라는 취지로 각도 장관에게 협

축산 및 우의강습회 개최상황

지 역	강습회 명	시 기	교과 과목	강 사	참석자	출 처
상주군	우의강습회	15. 7. 23~7. 29	병우간이치료법, 수역취급법	懶川惣兵衛	15명	관보 913호
김천군	우의강습회	15. 7. 25~7. 29	병축간이치료법, 수역취급법	添田岩衛門	26명	관보 918호
경산군	우의강습회	15. 8. 12~8. 16	진단의 요지, 간이치료법, 수역예방법	馬庭時秀	17명	관보 929호
달성군	우의강습회	15. 9. 27~10. 2	간이료법, 수역예방법	松原選太	15명	관보 964호
안동군	선인 우의강습회	15. 10. 4~10. 9	간이치료법, 수역예방법, 축산학대의	市岡點一郎	11명	관보 1007호
청도군 화양면	선인 우의강습회	15. 11. 22~11. 27	축산학일반, 수의학일반	小橋好一	10명	관보 1014호
평양	가축 의술강습회	15.12. 15~12. 22	치료실습, 해부, 생리, 위생, 축산대의 수의예방	小南澤之助 根本利廠	14명	관보 1067호
중화군 중화면	가축 의술강습회	16. 1. 24~ 1. 31	상 동	상 동	13명	관보 1067호
경주군	축산강습회	16. 2. 26~3. 2	축산대의, 수역예방법, 가축위생	山本源一	29명	관보 1102호
용인군	선인 우의강습회	16. 2. 28~3. 3	간이치료법, 수역예방소독법, 축산학대의	加藤榮作	19명	관보 1091호
청도군	선인 우의강습회	16. 3. 1~3. 5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축산일반	小橋好一	14명	관보 1091호
영일군 포항면	우의강습회	16. 3. 7~3. 13	병축치료법, 조제법, 수역예방법, 가축위생, 수의학대의, 축산학대의	松田 貞 木島千次郎	15명	관보 1109호
청주군	선인 수의강습회	16. 3. 25~3. 31	가축치료법, 해부 생리 위생 축산대의 수역예방법	渡邊 一	7명	관보 1130호
영덕군	우의강습회	16. 4. 16~4. 20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소독법, 축산대의	富田國松	6명	관보 1152호
경주군	우의강습회	16. 5. 13~5. 20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소독법, 축산대의	山本源一	12명	관보 1154호
선천군	도우박피법 강습회	16. 6. 8	도축장위생, 도우박피법, 축우생리대요	岡田鶴朗	11명	관보 1169호
김천군	우의강습회	16. 8. 14~8. 18	진단치료법, 약품사용법, 수역예방법, 축산일반	添田岩右衛門	35명	관보 1239호
북청군	우의강습회	16. 10. 20~10. 26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치병대의, 방역대의	保田 實 張翼聲(수의속성 과출산)	15명	관보 1292호

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거론한 것이다. 총 14건의 총독부 본부에서 제안한 것 중 11번째 선인 수의강습회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이 이후에 다른 도에서도 우의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수의학을 가르치고 있다.

우의강습회의 최초의 기록은 1915년(대정 4년 8월 18일자)의 조선총독부관보이다. 축산조합 우의강습회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상주의 양잠(養蠶)전습소에서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7일간 병우간이치료법, 수역에 관한 취급법을 상주군 축산조합기수 瀨川摠兵衛(농사강습회 때는 축산조합의 수의로 기재되었다)가 실시하였다는 내용이다. 강습생은 1개 면당 1명을 선발하였는데 종전의 조선 전통 우의라 칭하는 자 중에서 엄선하였다 한다. 강습생에 대해서는 강습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습을 받았는데 경비는 군 축산조합에서 부담하였다.

동년 8월 24일의 관보에는 경상북도 김천군에서 우의강습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상자는 종전의 우의를 대상으로 해서 1개면 당 1명을 엄선하였으며, 경비는 축산조합에서 부담하였다. 이 강습회는 경상북도가 가장 활발하게 개최하였으며 평안북도에서는 우의라는 용어대신 가축의술강습회 개최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외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한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우의강습회는 1917년(대정 6년)에 들어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 이는 각도에서 실시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혹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때 우리나라에서 현대수의학으로 우의를 양성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성한 우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실제 표에서 보는 이외에도 각 지방에서 우의를 양성한 듯하다. 1922년은 우의를 양성하던 1916년으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조선이라는 월간지의 지방시설 개황의 강원도 편에서 우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 축우의 위생은 축산동업조합 설치이후 일본으로부터 온 수의사들이 각 군에 배치되어 소의 질병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숫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1개면당 우의 한명씩을 배치해서 간단한 소의 질병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를 볼 때 지방 자체적으로 우의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인정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1921년에 각도 축산기술관과 수의무촉탁주임회(獸醫務囑託主任會)라는 모임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수의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모여서 사무적인 협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조선총독부 식산국장과 수역혈청제조소의 기사, 권업모범장의 기사, 이출우(移出牛: 輸出牛)검역소의 기사와 수의관, 육군의 수의부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들이 토의한 내용 중에 우의에 관한 항목들이 있다. 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항목에서 앞으로 우의취체규정(牛醫取締規程)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 연구 중이라 했으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확산에는 가축시장이나 가축상

그리고 우의들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역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 들이다.

또한 한반도는 가축전염병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전염병이 가축들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이 두려워 한 것은 한반도의 가축전염병이 일본으로 전파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찰의 힘으로 가축전염병을 방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수의결찰(獸醫警察)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수의사법이나 혹은 장제사법도 모두가 경찰법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 농사강습회

우의강습회가 끝날 무렵인 1915년 전후로 해서 각도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농사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름은 단순히 농사강습회 혹은 농림강습회인데 각도에서 주최하여 군을 순회하면서 실시했다. 강습회의 과목은 보통농사, 축산, 잠업, 임업 등이며 1개 군 당 5일간 강습을 실시했다. 강습생은 각 군에서 선발했으며, 강사는 도청에서 선정하여 파견했는데 도청소속의 농업기사와 축산기사들을 이용했다.

한 예로 1915년의 경기도의 강습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고양군 신도읍에서 강습생 59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고 다음에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천군 오정면에서 24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총 20개소에서 강습을 했는데 이들이 축산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수의학의 일부를 공부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의사가 많이 있으며 일부는 도축검사원 출신도 있다.

1916년도에는 아주 많은 농사강습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축산강습회는 전국적으로 199개소에서 남자가 9,342명이 20일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20일 이하의 단기교육은 전국적으로 1,711개소에서 남자가 48,953명이며 여자는 1,925명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이 배운 과목은 축산일반, 우의, 우피개량, 도부, 안장공, 양봉과 같은 기술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현대수의학을 직간접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사강습회는 191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즉 이후에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일본이 바라는 대로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든지 혹은 더 이상 강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이러한 가운데 1924년도에 축산강습소라는 것이 등장한다.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규정'이라는 것이 충청남도 고시 제22호로서 1924년 3월 11일에 발표된다.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는 '축산에 관한 필요한 지식기능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으며, 수업연한은 1개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5조의 강습과목이다. 일반적으로 축산이라고 하면 축산학이나 가축사양학과 축산제조학 등을 연상하게 되나 이 강습소에서의 교과과목은 바로 수의학과의 것이다.

가축생리, 해부조직, 병리, 약물, 내과, 외과(안과와 제병 포함), 산과, 세균, 수의경찰 및 축산법규, 축산, 가축사양, 축산제조, 목초, 실험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는 축산학이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수의학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습생의 자격도 3년의 공립농업학교의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는 1908년 수원농림학교의 수의속성과의 학생선발자격과 비슷한 것이며. 수업연한도 1개년으로 다른 강습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축산강습소는 단순히 규정의 공포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강습이 이루어졌다. 1924년 조선농회보 제8호에는 충청남도 '근농 데이' 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중에 공주의 관민 30여명이 축산강습소를 방문하여 개소식에 참가하고 해부실험실에 들려 소의 해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습장에서 사육중인 소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이 강습소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조선농회 축산수련소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조선축산협회의 강습회

식민지 조선에 조선축산협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1915년에 조선수의학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1919년 12월에 대구에서 제1회 조선수의학회(朝鮮獸醫學會)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구에는 제2회 경상북도 물산공진회가 개최중에 있었는데 이곳에 참가한 수의축산인들이 학회를 개최하고 당일과 익일에 물산공진회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수의축산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후 8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조선의 축산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주요사업으로서는 1921년에 조선수의학회휘보(朝鮮獸醫學會彙報)를 발행하였으며, 1921년에 조선축산협회로 개칭하여 그 이후에는 '조선의 축산(朝鮮の 畜産)' 이라는 제호로 매년 발행하였다. 또한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수의축산에 관한 순회강연 혹은 강습을 실시했는데 1921년부터 30년까지 12회에 걸쳐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연회는 11회에 걸쳐 실시했다는 보고가 있다.

강습 혹은 강연의 장소는 경기도청, 부산수역혈청제조소, 부산시청, 경상북도도청, 이리농업학교, 조치원보통학교, 광주금융조합연합회, 수원보통학교, 사리원농업학교, 정주종묘장, 대전금융조합, 경성공회당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대상은 축산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었다.

또한 축산에 관한 각종 영화를 비치하여 각도에서 개최하는 축산품평회나 공진회(共進會)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축산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 외 조선인의 축산에 관한 사상을 계몽하기 위하여 매년 1~2회 '조선의 축산' 이라는 잡지를 한글로 만들어 각 면 사무소나 보통학교에 무료로 배포하여 이용

하게 하였다.

각종 품평회나 공진회 개최를 통해서 축산발전에 조력했는데, 1920년 4월에는 조선가금공진회(朝鮮家禽共進會)를, 1927년에는 전국축산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에서 온 수의축산계 인사들에게 한국의 실정을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1929년도에는 박람회장에 축산 특설관을 개설하여 축산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 예로 조선가금공진회는 상당히 인기 있는 행사였던 것 같다. 경복궁에서 실시했는데 전국의 축산조합들이 참여했으며, 각종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아동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닭의 사양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으며 특히 일반 농민들이 부업으로 닭을 기르게 하였기에 당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총독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던 많은 단체들이 조선농회령(1926년 1월)이 공포되고 난후 1932년 말경 조선총독부에서는 각도 축산주임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도의 축산조합의 업무를 조선농회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다른 조직들도 합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관련 단체들이 일시적으로 반발하였으나 산업단체의 통일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조선축산협회도 그 업무를 조선농회에 이관하면서 해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의축산학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선농회에서 해야 할 일과 구분되는 일이 있음으로 수의사들이 모여 조선수의축산학회(朝鮮獸醫畜産學會)라는 조직을 1933년에 다시 창설하게 된다. 설립목적은 수의축산에 관한 연구조사와 아울러 조선에 나와 있는 수의사들의 상호친목도모에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의축산에 관한 연구조사와 회보 및 도서의 발행, 자체적인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축산발전에 관한 질의응답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회에서는 매월 1회 정도로 학술잡지를 발행했는데 조선수의축산학회보이다. 이의 주된 내용은 조선반도가 당면한 수의학과 축산학의 현 상황을 그대로 분석하여 알리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기도 해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조선수의축산학회보는 1930년대의 조선의 수의축산계의 현황을 가장 소상히 밝혀 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수의축산학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의축산계의 기존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의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발행한 회보에는 학술적인 자료에서부터 총독부의 시정(施政)자료까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3) 조선농회의 역할

일본식민지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조선농회라는 것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발간되는 잡지가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이다. 이 농회의 초기발족은 한국농회(韓國農

제1회 수의축산강습회 강습내용

강연자	소 속	제 목
葛西 勝彌	북해도제국대학 교수	방역의 국제화 소연방의 수의축산계
大澤 竹次郎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가축의 각 장기의 사명과 그의 가치
佐佐木 淸綱	구주제국대학	疫牛의 체형에 관한 생물측정학적 고찰
中村 稕治	수역혈청제조소 기사	우역 및 조선신계역에 관하여
毘野 恒太郎	수역혈청제조소 소장	기종저, 豚疫様疾患, 추백리 보균계에 대하여
內田 幸夫	수원농사시험장 기사	야초의 조제에 대하여
伊佐山伊三郎	조선총독부 기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이출우검역에 관하여
油井 岱治	조선총독부 기사	조선 축산의 장래

會)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시대에 통감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제 농민조직으로서 합방이후에 조선농회로 바뀌어 진 것이다. 그리고 회장에는 한일합방의 공신 이완용(李完用)이 취임하였기에 상당히 힘이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완용도 1926년 조선농회령이 공포되면서 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일본인이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부회장에 박영효가 취임하였다.

이곳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로서의 한반도를 이용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한국농촌의 실정을 아주 상세히 파헤쳐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한반도의 각종 정책은 이들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농회령이 공포되고 난 이후 초기에는 농회 자체가 농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1933년에 들어서 한반도의 모든 농업과 관련되는 조직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그래서 종전의 축산조합이라는 것도 또한 조선축산협회라는 조직도 조선농회에 흡수된다.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로 알려진 것은 당초 1906년에 창간되어 매월 한국농회보(韓國農會報)라는 잡지로 발간되었는데 초기에는 많은 지면에 수역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농상공부의 축산과장이었던 하라시마(原島善之助) 수의사가 한반도의 수역예방을 위하여 제언한 많은 분량의 '韓國の 畜産と 獸疫'에서 한반도의 축산을 발전시키고 수역을 예방하기 위한 12가지의 제안을 내 놓았는데 모두가 일본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한반도의 수의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한반도의 방역에서 소개하겠다.

조선농회가 한반도에서 조선축산조합 등 축산관계단체의 업무를 인수 후 최초의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축산과 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933년 10월 18일부터 5일간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 장안사 공회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른바 조선농회 제1회 수의축산강습회인데 강사는 당시 사계의 권위자를 모셨으며, 수강생은 전국에서 축산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산업기수, 경찰위생기수, 농회기수 등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강연의 주요제목과 강사의 면면은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의축산강습회는 그 후 계속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획책할 무렵에는 한반도에서 각종 산업을 육성해야 함은 물론 축산업도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기에 조선농회에 축산기술원(畜産技術院)을 설치하고 내부기관으로 축산수련소(畜産修鍊所)라는 기관을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후된 수의축산관련기술을 전수하게 되는데 정규적인 수의학과에서 수업한 사람들도 이곳에서 연수를 받기도 한다.

축산기술원을 설치한 목적은 '축산제반의 지도장려와 수이출우(輸移出牛)의 검수 및 축산물의 매매알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사 1명 기수 5명 고원 1명으로 설치한다' 라고 했다. 하부 기관인 축산수련소에는 전임강사로서 기사 1명과 기수 1명이 항시 수련생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 축산수련소의 축산강습회

축산수련소에서는 단기와 장기 축산강습회를 실시했는데 단기는 대개 5일정도이며, 장소는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실시하였다. 1941년도 단기 축산강습회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단기 축산강습회의 과목과 강사

과 목	소 속	강사명
양토	양토회	小寺芳雄
모피	용산육군창고	堀 소위
사료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内田기사
가축전염병	수역혈청제조소	越智기사

개최되었는데 이때는 당시 전쟁용 군수물자의 하나로 토끼 가죽과 토끼털을 보급하기 위하여 양토(사업을 크게 벌였기에 이에 발맞추어 양토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수강자는 조선농회 소속 축산기술원 약 60명이었는데 과목과 강사는 표와 같으며, 과외 강연으로서는 조선총독부 축산과의 井上기수가 "조선에서의 양토의 중요성 및 토끼 증식계획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가축전염병을 담당한 越智기사는 해방직전인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越智勇一씨이다.

조선농회 축산수련소는 설립이후 계속하여 간헐적으로 축산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본격적인 장기강습은 1940년(소화 15년)에 시작되었다. 이 해에 기숙사와 취사장 각 1동을 건설하고 제1회의 장기강습을 실시하였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축산장려와 증산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했기에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수련생의 선발은 각 군 농회의 축산기술원으로

축산수련소의 강습학과 및 실습

강사 명	시간 수	과 정	실 습
八田 소장(농회이사)	5시간	수신	–
大久保 강사(고농교수)	13	가축생리	–
中根(고농 조교수)	30	임상수의학	–
小山(고농 조교수)	37	세균 및 전염병	–
吉森(고농 조교수)	33	축산 및 축산가공	84회
内田(농시 기사)	10	축산(소와 돼지)	38회
瀬島(농시 기사)	36	축산(닭)	78
向坂(농시 기수)	7	축산	–
계	186		210
초빙교수			
湯川 장장	3	조선의 농업과 축산	
植木 교수	3	임업과 축산	
木村 교수	3	사료작물	
一色 교수	3	가축기생충	
西田 교수	3	해부학	
東 교수	3	기술자의 지도법	
池田 조교수	4	감자와 사료작물과의 관계	
和田 기사	3	조선의 농업	
三須 기사	5	자급사료	
今林 촉탁	3	축력 이용	
油井 축산과장	3	축산행정	
坂巻 기사	3	축산 증산 계획	
遊佐 기사	3	조선 산마	
近藤 시학관	3	기술자의 마음가짐	
梅津 축산과장	3	조선 축산행정	
15명	50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 도농회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수련기간은 3개월로 년 3회 개강하고 매 20명을 한도로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여 농촌에서의 유축농업 및 수의축산에 관한 지식과 아울러 정신적 훈련을 받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직원으로서는 겸무소장 이외 기사 1명과 기수1명을 배치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 및 농사시험장의 직원 8명을 촉탁강사로 하여 학과 및 실습을 지도하고, 수원농림고등학교장 이외 조선총독부 관계 직원 약 15명에게 의뢰하여 과외 강의를 청강토록

하였다. 학과와 실습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과 200시간 실습회수 약 150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회 강습생은 8월 26일 20명(일본인 1명 조선인 19명)이 입소하였는데 그 출신학교별로 보면 수의축산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4명, 농업학교 출신자가 5명, 기타 11명은 고등보통학교 또는 보습학교나 보통학교 출신자들이었다.

휴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을 견학하는 코스이다. 즉 직접간접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조선총독부 세균검사소, 인천 이출우검역소, 원피회사, 경성공립농업학교, 경성경마장, 경성도살장과 가축시장, 수원도살장과 가축시장, 감자재배 모범부락 등이었다.

학과목 이외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모두가 그들이 바라는 충성스런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4) 사설 농업 및 수의학원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가 조선총독부나 혹은 지방정부 그렇지 않으면 총독부의 산하기관들이 수행한 업무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말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신식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이 대단하였기에 새로운 과목들을 가지고 사설학원들이 범람하고 있었다. 즉 고전의 수의학보다는 새로운 일본의 수의학을 배우면 돈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수의사들이나 농과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설학원을 개설하여 수의학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조선수의사규칙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수의사면허증과는 무관하게 가축의 진료를 할 수 있었기에 돈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설학원을 수료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신문에 사설학원의 모집광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8월 27일자 황성신문의 광고문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원모집광고

본소에서는 농업을 장려키 위하여 잠업강습소를 농업강습소로 개칭하여 야학원을 모집하오니 지원인은 오시기 바랍니다. 교과과목으로서는 農學大義, 柞蠶, 家畜學, 獸醫學, 果樹栽培論, 森林學, 土壤學, 肥料學, 簿記, 商業會社, 日語 등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이러한 학원은 어느 특정한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당시 신문지상을 상당히 많이 메우고 있다. 학원이름들도 특이하다. 신흥농업강습소, 중부전동흥사단내 융흥농림강습소, 경성교동 협성학교내 농림강습소, 사립 장훈학교등 다양한 이름들이 1910년 전후를 해서 학생들 모집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강의과목에도 수의학이나 축산학에서부터 목우 목양 양돈 양계 등 다양하다.(1909년 8

월 27일 황성신문, 1909년 10월 12일 황성신문, 1910년 9월 13일 한상신문, 1909년 11월 11일 황성신문, 1910년 4월 24일 황성신문, 1910년 5월 30일 황성신문, 1909년 8월 20일 황성신문)

이들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수의학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일본에서 새로 도입한 서양수의학을 배웠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에서 수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의학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수의업무에 종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수의사규칙 제정과 함께 가축의생규칙이라는 것도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수의학의 도입과정중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강사 중에는 일본에서 어깨 너머로 수의학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생 한국에서는 각종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므로 한일합병이후에는 이러한 학원을 금지하였기에 신문지상에서 광고를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양수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산적해 있었다.

3. 정식 수의학 교육의 실시

1) 수원농림전문학교의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의 개교는 대한제국 시로 소급해서 올라간다. 물론 당시의 정세는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기에 일본의 사주나 권유에 의했을 것이다.

대한 제국의 초기 의정부의 각부에 농상공부(農

수원농림전문학교의 변천사

년 도	학 교 명	설 치 학 과
1904년 6월	농상공학교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1906년 8월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본과, 연구과(농학 임학), 속성과(농학 임학)
1908년 3월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본과와 연구과, 속성과(농업 임업 수의)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본과, 속성과(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
1917년 3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본과와 속성과 외 전문과정
1918년 4월	수원농림전문학교	전문과정
1922년 4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임학과
1937년 4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1943년 4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업토목학과
1944년 4월	수원농림전문학교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업토목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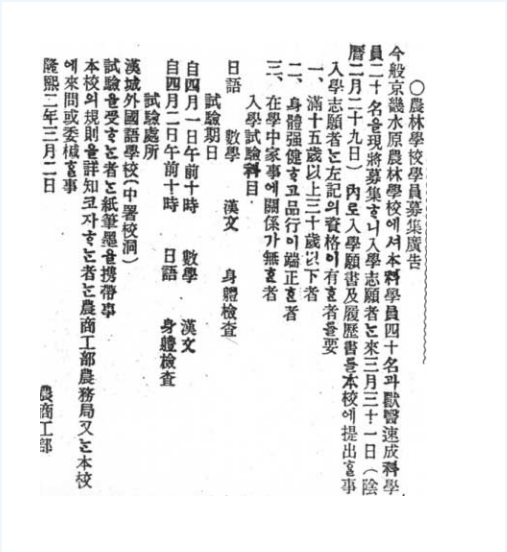
商工部)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 날 상공부와 농림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1899년(광무 3년) 6월 24일 칙령 제28호로 농상공부 소관 상공학교관제가 공포된다. 이 학교에서는 상업과 공업을 위한 학문을 수업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4년(광무 8년) 6월 8일에 칙령 제16호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관제가 공포되었는데 제 1조의 목적에는 농업과 상업 및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장소라고 하였으며, 이 학교에는 농업과와 상업과 공업과를 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무3년 칙령 28호로 공포된 농상공학교 관제는 폐지한다고 했다.

2) 농림학교에 수의속성과가 탄생

2년 후인 1906년(광무 10년) 8월 27일 칙령 39호로서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관제라는 것이 공포된다. 비로소 농업학교로서의 최초의 학교이다. 제1조 목적에 농림학교는 농상공부 대신의 소속하에 농림업에 관한 교육기관이라 했으며 교장은 농무국장이 겸임한다고 했으며(그 후 勸業模範場 장장이 겸무로 변경), 시행 시기는 9월 1일부터라고 했다. 이어 9월 12일에는 농상공부령 제 48호로서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규칙이라는 것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 시기는 9월 15일부터라고 했다.

또한 농림학교에는 부설 농사시험장이 설치되었는데 이 농사시험장은 일본식민지 시절에 권업모범장으로 변신하면서 권업모범장장이 농림학교장


○農林學校學員募集廣告
今般京畿水原農林學校에서本科學員四十名과獸醫速成科學員二十名을現將募集ᄒᆞ니入學志願者ᄂᆞᆫ來三月三十一日(陰曆二月二十九日)內로入學願書及履歷書를本校에提出ᄒᆞᆷ事
入學志願者ᄂᆞᆫ左記의資格이有ᄒᆞᆫ者를要
一、滿十五歲以上三十歲以下者
二、身體强健ᄒᆞ고品行이端正ᄒᆞᆫ者
三、在學中家事에關係가無ᄒᆞᆫ者
入學試驗科目
日語　數學　漢文　身體檢査
試驗期日
自四月一日午前十時　數學　漢文
自四月二日午前十時　日語　身體檢査
試驗處所
漢城外國語學校(中署校洞)
試驗을受ᄒᆞᆫ者ᄂᆞᆫ紙筆墨을携帶ᄒᆞᆷ事
本校의規則을詳知코자ᄒᆞᆫ者ᄂᆞᆫ農商工部農務局又ᄂᆞᆫ本校에來問或委槪ᄒᆞᆷ事
隆熙二年三月二日
農商工部

으로 겸직하게 되었으며 해방이 되기 전까지 농림학교에는 독자적인 학교장이 없었다.

제2조에는 학과목을 두었는데 본과와 연구과를 두며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연구과는 본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과 임업을 1년 간 더 수학할 수 있는 제도였다.

제5조에는 속성과(速成科)를 두는데 이는 농업과 임업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1년간의 수학을 받는다. 또한 20조에서는 본과와 연구과 학생들에게는 월 5원의 수업료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 학교를 수원으로 이전 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학교는 완전히 국비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총 조문은 30조이며, 이 규칙에 근거해서 1908년에 수의속성과(獸醫速成科)가 설치된다. 1908년

수의속성과의 합격자

도 별	지원자	합격자	도 별	지원자	합격자
경 기 도	22	5	충청남도	5	0
충청북도	1	1	경상남도	1	1
강 원 도	1	1	황 해 도	1	1
평안남도	7	5	평안북도	5	2
함경남도	6	4	계	49	20

(융희 2년) 3월 4일 농상공부령 62호로 농림학교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즉 제5조의 속성과 조항에 "농업 및 임업"을 개정하여 "농업 임업 및 수의"를 둔다 라고 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수의과라는 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이다.

이로서 1908년 3월 2일자로 농상공부 명의로 수원농림학교에 본과와 수의속성과가 설치되었기에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3차례나 실린다.

4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서울의 외국인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했는데 총 응시자 49명중 20명이 합격하였다. 당시의 도별 응시자수와 합격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당시의 경쟁률이 2.5대1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수의축산과의 정확한 학과목을 알려진 것이 없으나 당시는 비록 대한제국이라고 하지만 모든 정치는 통감부에서 조정했기에 수의학속성과의 교과과목도 당시 일본군부에서 사용하던 마학(馬學)이나 말과 관련되는 학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즉 일본군부에서 사용하던 마학휘편(馬學彙編)이나 제철학 등이 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상학에서도 주로 말을 대상으로 다루었을 것이다.

이들은 1년간의 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해인 1909년 4월 10일 본과 제2회 졸업식과 아울러 수의속성과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수료생은 평안남도 안주출신의 정찬선(鄭燦先)씨외 19명이었으며, 가장 고령자는 경기도 개성출신의 황낙규(黃珞圭)씨가 31세였다. 이들은 입학 시에 이미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정부에서 배치한 곳에서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쪽지방인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지방에 우역(牛疫)이 창궐하였기에 주로 방역수의사로서 활동을 했을 것이며, 일부의 인사들은 우의강습회의 강사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당시 수의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예로 장 익성씨는 "北靑郡 泥望只里 産牛契 狀況 '이라는 논문을 조선농회보에 2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는데, 우의강습회 때는 북청군

수의학속성과 졸업생 명단

출신지	성 명	연 령	출신지	성 명	연 령
평남 안주	鄭 燦先	18	평남 중화	李 昌夏	20
경 성	池 銖鏞	23	평북 운산	鄭 敬雲	20
함남 함흥	宋 馹鏞	24	경남 곤양	李 英浩	20
함남 함흥	金 達鉉	26	함남 북청	金 洪燮	27
평남 맹산	金 炳一	27	함북 길주	玄 義相	28
경기 개성	黃 珞圭	31	함남 북청	金 泰圭	25
함남 북청	張 翼聲	21	평남 삼화	邊 泰奎	28
황해 서흥	全 奉學	25	함북 철산	朴 敬善	27
함남 정평	車 萬軫	27	강원 이천	李 鳳燮	26
평남 강서	李 元鎬	23	평북 강계	李 洪基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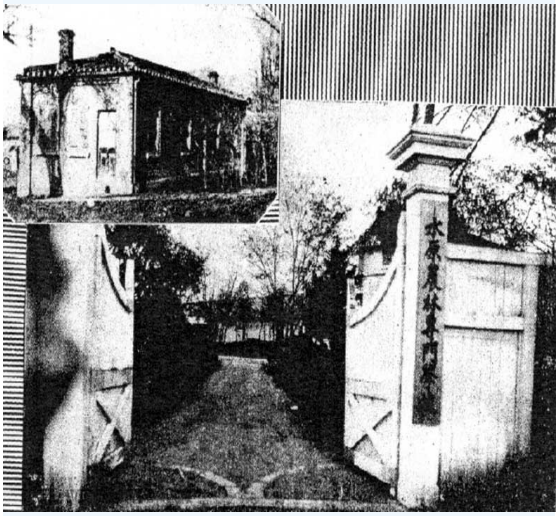
의 강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외도 여러 분들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기도 한다.

당시 수원의 고등농림학교는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곳이었다. 앞으로 한국 농업 발전의 요람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수의속성과 학생들이 수학하던 그 해에 순종황제께서 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수와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으며, 4월 10일 졸업식에는 통감부의 부 통감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하였다.

그 이후 1914년에는 당시의 총독이던 테라우찌(寺內)총독이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경무총감 등을 대동하고 권업모범장과 수원농림학교를 방문하여 관계관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수의속성과가 설치된 배경에는 한반도에 만연하는 각종 수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 수의사 하라시마(原島)씨가 함경도를 여행한 후 '朝鮮の畜産と獸疫' 이라는 논문을 한국농회보에 연재했는데 그중 네 번째 건의사항에 '한국 수의 양성' 이 시급히 요구된다 라고 했다. 또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1년제 수의속성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해 수의속성과가 설치된 듯하다.

1909년에 수의속성과 20명을 배출한 후인 다음해 농림학교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제5조의 속성과는 '농업 임업 또는 수의에 관한' 것을 속성과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수의' 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본과의 교과과목 중 '수의학대의' 라는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1913년 12월에 농림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종래에 있던 수의학대의를 삭제하고 대신 축산학을 3시간 배정하게 된다.



1917년 3월에는 농림학교에는 전문과를 두는데 학과목에는 축산과 가축사양학 세균 들이 삽입되었으나 수의학은 빠져 있었다.

이 이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1931년 이리농림학교와 의주농림학교에서 각각 수의축산과와 축산과 학생을 모집할 때까지 한반도에서는 우의강습회나 축산강습회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정규학교에서의 수의학 강의는 없었다.

이 공백기에는 주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수의사들이거나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제한적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가축방역업무로 보아 수의전문학교(獸醫專門學校)의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 양성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너무나 적은 수의사 수자 때문에 가축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보고서가 조선농회보 등에 자주 거론되기도 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축산의 규모는 상당히 발전되었다. 소가 약 1백6십만두, 말이 7만두, 돼지가 1백2십만두, 닭이 6백2십만수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생우 420만원, 우피 340만원, 기타 지육 우지 우골 등을 합산하면 1천만 원에 달하는 중요 물산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의 기술자가 요구되나 당시로서는 일본 수의사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한반도의 축산보호에 가장 적당한 수의기술자의 양성을 필요로 해서 수역혈청제조소가 있는 부산에 총독부립(總督府立)의 조선수의전문학교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다. 예산은 약 10만원 정도로 1927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건립하고자 했으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더 진행되지를 못했다.

1918년에 들어와 종래의 조선총독부 농림학교에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교명이 개정된다. 이로서 정식으로 수원이라는 지명이 교명에 사용된다. 1922년 4월의 제학교(諸學校)관제를 개정하면서 전문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으며 학교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학과의 교과목에 가축영양학 축산제조학과 함께 수의학대의가 정식과목으로 추가된다. 이로서 1913년에 삭제되었던 수의학대의가 다시 부활하였다.

3) 수의축산학과의 신설

1937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 47호로 수원

수의축산학과 학과목별 시간배정(1937년)

학 과 목	학 년 별(전후학기)						학 과 목	학 년 별(전후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1	1	1	1	1	1	산과학	–	–	–	–	1	1
국어	2	2	2	2	2	2	진단학	–	–	1	1	1	1
영어	2	2	2	2	1	1	마학	–	–	2	2	–	–
독일어	2	2	2	2	1	1	우학	–	–	2	2	–	–
물리학 및 기상학	2	2	–	–	–	–	양학	1	1	–	–	–	–
화학	2	2	–	–	–	–	돈학	1	1	–	–	–	–
토양학 및 비료학	2	2	–	–	–	–	가토 가금 양봉학	1	1	–	–	–	–
법학통론	–	–	–	–	2	2	가축영양학	–	–	–	–	1	1
측량학	–	–	1	1	–	–	축산학원론	–	–	–	–	1	1
작물학	2	2	–	–	–	–	축산제조학	–	–	–	–	2	2
							유육학	–	–	–	–	1	1
가축해부 및 조직학	4	4	–	–	–	–	피혁제조학	–	–	–	–	1	1
가축생리학	2	2	–	–	–	–	가축위생학	–	–	–	–	1	1
생화학	–	–	1	1	–	–	번식학	–	–	1	1	–	–
약리학	–	–	2	2	–	–	제철학	1	1	–	–	–	–
병리학	–	–	2	2	–	–	제병학	–	–	1	1	–	–
병리해부학	–	–	–	–	2	2	수의경찰 및 법규	–	–	–	–	2	2
세균학 및 면역학	–	–	2	2	1	1	체조	3	3	3	3	2	2
기생충학	–	–	1	1	–	–	(경제학)	–	–	2	2	–	–
내과학	–	–	2	2	1	1	(재정학)	–	–	–	–	1	1
전염병학	–	–	–	–	2	2	계 41과목	28	28	32	32	27	27
외과학	–	–	2	2	1	1							

고등농림학교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다. 제2조의 농학과 및 임학과를 농학과 임학과 및 수의축산학과로 개정한다 라고 했다. 이로서 수의축산학과가 고등교육과정의 학과로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44년 6월에는 관립(官立)농업전문학교 규정이 제정되면서 농림학교는 수원과 대구의 2개교만이 농업전문학교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종래의 수원고등농림학교는 '고등' 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전문' 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어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로 개칭되었으며 대구농업전문학교와 함께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문농업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지켰는데 대구농업전문학교는 농학과와 농업화학과만이 설치되었다.

1944년부터 실시된 수의축산과 교과과목 시간표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도의	35	35	35	가축번식	70	35	–
인문	70	70	–	가촉	105	70	–
교련	112	112	112	장제	–	–	35
단련	70	70	70	군진수의	–	–	35
화학	70	–	–	가축사육	–	70	70
가축해부	140	–	–	작물	–	70	35
가축생리	140	–	–	임업 및 목야	–	–	35
가축병리	70	105	–	축산제조	–	–	140
가촉약물	–	70	–	축산경영	–	–	35
가축내과	–	70	70	수의축산법규	–	–	35
가축외과	–	70	105	실험실습	490	490	525
가촉위생	35	35	70	총계(23과목)	1477	1477	1477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면서 1937년에 제정하였던 수의축산학과의 수학과목의 변화가 있었다. 총 41개 과목이던 것이 23개 과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일부과목의 명칭이 상당히 순화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전쟁 말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일부과목을 바꾸었는데 군진수의학(軍陣獸醫學)이라는 것이나 교련과 단련 과목과 같은 것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축산과목들은 상당수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문학교과정으로서 수의축산학과는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당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학비율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한국인이 입학하고 싶어도 일정비율(전학생의 20~30%)의 범위 내에서만 입학이 가능할 때였다. 그래서 한국인 졸업생 숫자는 일본인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하다. 예를 들어 1937년도 입학한 학생이 1940년에 졸업을 했는데 한국인은 고작 4명이며, 일본인은 15명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수원농림학교 수의학과가 개설되기 이전에 실업교에서는 이미 수의교육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실업교육령이라는 것이 문부성에서 반포되었는데 한반도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되었다. 이무렵 한반도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므로 수의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농민들도 수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최초로 실업학교에 수의축산과가 신설된 것이 이리농업학교였으며, 축산과가 신설되어 수의학을 수학했던 곳이 도립 의주농림학교였다.

4) 농민들이 수의축산학과의 신설을 요구

1910년대와 20년대 초에 우의강습회나 축산강습회가 있은 후 한반도의 어느 곳에도 수의축산을 가르치는 강습소나 학교가 없었다. 가축의 사양두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가축의 질병을 치료할 수의사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용인에 사는 농민 吳 性善이라는 분이 과감하게도 조선농회에 '獸醫教育の必要'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다.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당시의 농민의 고통을 그대로 전한 듯하다.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농업국인데 주민의 8할 이상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예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식물이 소고기인데 1910년 이후 당국의 노력으로 각도와 각 군에 축산동업조합을 설립하여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각 조합에는 일본인 수의사 한 명과 조선인 조수 몇 명이 고작이다. 이러한 숫자는 농가에서 사육중인 농우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기술자의 숫자가 적은데다 다른 일들 때문에 기술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자들이 조합비나 우시장의 매매수수료의 징수와 같은 일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직인 병든 소를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동쪽의 사육자가 병든 소가 있어서 달려갔을 때 기술자는 서쪽에 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으며, 남쪽에 거주하는 분이 오늘 자기의 소가 우역에 걸렸기에 달려갔는데 수의사는 어제 북쪽으로 출장을 갔다고 한다. 수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초초하게 왕래하여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늦어 소는 죽은 후이다. 어떤 경우 수의사 대신에 조수를 만나 진료를 부탁한다. 물론 충분한 진료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나 조수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 골절이 되었다면 절박도살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라든지 혹은 우역에 감염되었기에 살처분해서 소각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내리지 않기에 사육가로서는 아주 불안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민의 좁은 소견이지만 각도 당국의 도립농업학교에 수의과를 설치하여 매년 몇 명의 조선인을 수용하여 수의학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들이 졸업 후 각 군이나 면사무소의 수의로 채용하여 가축의 치료에 종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축우증식에도 아주 좋은 일이며, 농업의 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 청년들의 취직난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각 군 축산동업조합의 수입의 일부를 지방비로 편입하여 농업학교의 시

설을 충당한다면 국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수의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경기도 각 군 축산동업조합의 예산은 35만4천여원으로서 각 군 평균 2만3천원인데 이 예산의 1할만 거둔다면 3만5천원이라는 거금이 된다. 이 금액을 수의사 양성비에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소의 치료를 하지 못하는 농민과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를 빨리 완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시기는 1930년인데 조선농회로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조선농회보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총독부의 사전검열을 받아 기사화할 때인데도 이와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총독부로서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총독부로서는 어려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교수요원의 확보나 시설이나 기구들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다음해인 1931년에 도립실업학교인 이리농업학교와 도립인 의주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승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추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

이리농업학교(裡里農業學校)가 설립된 것은 1922년으로 소급해서 올라간다. 1922년 3월 31일부로 칙령 제151호로서 조선총독부 ‘제학교(諸學校)관제’ 라는 것이 공포된다. 제1조에서는 “조선총독부전문학교는 좌와 같다“라고 해서 수원농림학교가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함께 정식으로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아직 수의학과와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그리고 제2조에는 조선총독부의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으며 23번째에 이리농업학교가 명시되어 있다. 그 후 1925년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고시 70호로 이리농업학교는 도립학교라고 밝혔다.

이리농업학교에서 수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실업학교(實業學校) 규정에 의해서다. 1911년에 제정된 실업학교규칙의 6조에는 잠업 산림 축산 또는 수산 등의 학교는 농업학교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수의(獸醫)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1922년 2월에 발표된 실업학교 규정의 제2조에 수의학교(獸醫學校)는 농업학교로 간주한다고 했다.

제학교관제의 별표의 교직원수에 있어서 이리농업학교는 교장 1명과 교유(教諭;교수의 다음직책) 4명, 서기 1명으로 정해져 있다. 법규에 의해 이 학교는 정식으로 실업학교로 등록되었기에 수의학과(獸醫學科)를 둘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2년에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를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북지

역의 주민들과 전라북도 평의회에서 수의축산학과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31년 3월 20일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당시 많은 실업학교나 도립학교에서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요구했을 것인데 이리와 의주만이 수의축산학과의 설치 승인이 났을까. 의주는 그야말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중국의 각종 가축전염병이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수의축산과를 신설해서 서구의 수의학교육을 배운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면 일본의 우역의 방패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호남평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학과의 요구조건이지 수의축산과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임학과도 설치가 되었는데 이리의 경우는 광활한 평야지대이기에 임업과도 거리가 먼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당시로서는 갑종 실업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거리가 먼 임학과나 수의축산과가 설치되었을까. 당시 전라북도 관리들의 힘과 아울러 도민들의 열의가 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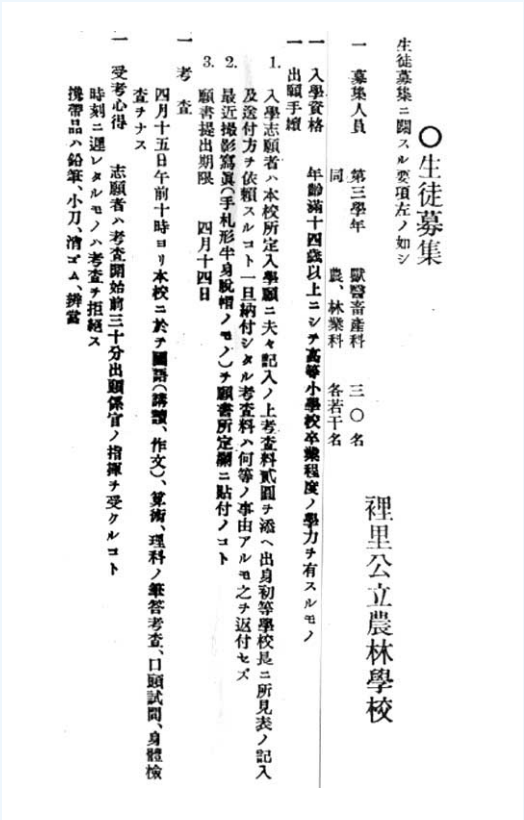
실제로 이리농림학교의 설립에 도민의 열과 성의 결과였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도민들이 성금을 마련해서 쉽게 실업학교가 유치되었다. 수의축산과를 신설할 때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수의축산과의 신설은 1928년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라북도 내무부장으로 부임한 松下芳三郎씨는 중앙의 조선총독부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다. 그들은 총독부의 직접관계자인 富永文一 지방과장과 만나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쳐 결국에는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결정되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출한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현하 조선에 있어 일반인의 가축에 대한 지식은 극히 유치하여 사육관리에 재래의 관습을 고수하고 의약치료의 지식은 전혀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영업자의 지식계발은 현하 당면한 급선무이다. 그런데 이의 지도와 장려에 종사해야 할 인물을 양성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그 지도자를 일본에서 구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강습 등으로 근근이 보충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자는 언어와 민정에 불통하고 후자는 소양불충분으로 양자 다 같이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 성적이 불충분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양성기관을 조선에 설치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축산 개량증진 및 농업개발을 위하여 극히 적정한 계획으로 믿는 바이다."

그리고 이리농업학교에 설치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교가 창립당시 조선 내 농업교육의 상태에 비



生徒募集ニ關スル要項左ノ如シ

○生徒募集

一 募集人員　第三學年　獸醫畜産科　三〇名
同　農、林業科　各若干名

一 入學資格　年齡滿十四歲以上ニシテ高等小學校卒業程度ノ學力ヲ有スルモノ

一 出願手續
1. 入學志願者ハ本校所定入學願ニ夫々記入ノ上考査料貳圓ヲ添ヘ出身初等學校長ニ所見表ノ記入及送付方ヲ依賴スルコト一旦納付シタル考査料ハ何等ノ事由アルモ之ヲ返付セズ
2. 最近撮影寫眞(手札形半身脫帽ノモノ)ヲ願書所定欄ニ貼付ノコト
3. 願書提出期限　四月十四日

一 考　査
四月十五日午前十時ヨリ本校ニ於テ國語(講讀、作文)、算術、理科ノ筆答考査、口頭試問、身體檢査ヲナス

一 受考心得　志願者ハ考査開始前三十分出願保管ノ指揮ヲ受クルコト
時刻ニ遲レタルモノハ考査ヲ拒絕ス
携帶品ハ鉛筆、小刀、消ゴム、辨當

裡里公立農林學校

추어 전 조선을 대상으로 총독부 직할하에 창설되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후 시대의 진운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 변화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경비조달(국고보조), 학생모집(전국 내 각지에서 입학고사 시행), 학생의 지역 분포(전국 각지에 분포, 전북은 10%에 불과함) 등으로 볼 때 전국적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각도에 있어 비교적 실시하기 어려운 수의축산과를 먼저 본교에 설치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믿는다."

1931년 4월 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생도모집이라는 광고가 등장한다. 수의축산과 학생 3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고등소학교 졸업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했다. 시험일자는 4월 15일이며, 시험과목은 국어(강독과 작문: 일본어), 산술, 이과 등의 필답고사와 구두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이 1931년 4월 20일 드디어 한반도에서 정식으로 수의축산학과라는 이름의 학과의 학생이 되었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수의축산과 특별교실이 1932년 3월에 준공되고, 8월에는 돈사와 퇴비사가, 그리고 1933년 8월에는 가축진료소와 제철공장(장제소)이 준공되었다.

이들의 1~2학년 때는 일반학교의 생도와 같은 교양과정을 수업 받으나 3학년 때부터 수의축산과는 시험을 쳐 합격한 자들만이 수의축산과 과목을 교수 받는다. 비록 5년제 농업학교라 할지라도 수의축산과의 수업연한은 3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3학년부터 수의학을 공부하였기에 1934년 3월에 27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중도에서 3명이 탈락한 듯하다. 당시 수의축산과의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다. 한반도에 와 있던 일본인으로서 매력이 있었던 학과인 듯 한데 이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숫자가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학과목과 시간배정

과 목	3학년	4학년	5학년	과목	3학년	4학년	5학년
수 신	1	1	1	병리병해	–	2	–
공 민	–	2	2	유육위생	–	–	1
일 어	3	3	3	세 균	–	1	–
수 학	3	2	1	약 리	–	2	–
물리화학	4	1	1	내 과	–	2	2
역사지리	1	–	–	기생충	–	1	–
조선어	1	1	1	전염병	–	–	3
영 어	2	2	2	축 과	–	–	2
체 조	4	3	3	외 과	–	3	2
작 물	2	–	–	제 학	1	1	1
축 산	2	3	2	수의경찰	–	–	2
해부조직	3	–	–	실험실습	부정기	부정기	부정기
가축생리	2	–	–	총계	29	30	29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 졸업자(1935–1950)

년 도	한국인	일본인	총졸업자	년 도	한국인	일본인	총졸업자	비 고
1934	11	16	27	1942. 12	24	17	41	
1935	14	11	25	1943. 12	28	29	57	* ( )내의 숫자는 1945년 해방당시 수의축산학과 4학년에 재학했던 학생숫자이다.
1936	11	22	33	1944. 12	22	23	45	
1937	11	16	27	1945. 3	34	17	51	
1938	10	15	25	1946. 6	30	(20)	30	
1939	11	15	26	1948. 6	15	–	15	
1940	17	16	33	1949. 6	25	–	25	
1941	15	15	30	1950. 4	31	–	31	
1941. 12	24	19	43	계	333	231	564	

비슷하다는 것이다.

표에서 보면 1941년부터 12월 졸업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수업연한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단축한 결과이다. 또한 1950년도에서 4월까지의 졸업생을 함께 계산한 것은 이들도 1944년 4월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수의축산학과를 입학한 사람들이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 교수들이 물러나고 난 이후의 수업상황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아주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수들이 없어서 학생들만이 모여 우왕좌왕하였으며, 학교당국에서는 교수초빙에 혈안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선배나 유자격자를 찾아가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 수의축산과 교수로서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소장이신 이 남신박사나 동 연구소의 세균과장으로 재직한 문 재봉박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해방 후 졸업한 수의사들도 일본식 수의학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기에 이리농림학교는 최초로 한국인 수의사 333명을 양성했던 곳으로 우리 역사에 기리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현재는 전북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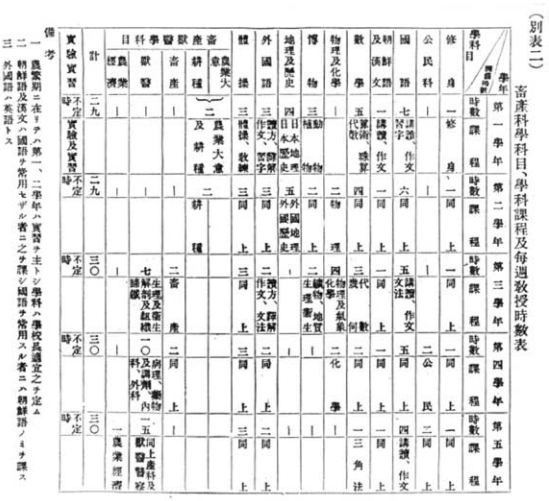
교 익산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이 학교에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한 채 있다. 1931년에 수의축산학과학생을 선발하고 수의축산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건축한 건물로서 1932년 3월에 준공을 한 것이다. 약 100평의 붉은 벽돌로 건축한 것인데 원래의 건물에는 지붕 끝에 몇 개의 굴뚝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건물이 낡아져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굴뚝은 없어졌으며, 내부공간은 원래의 것과는 다르게 칸을 막아 사용되고 있다.

6) 의주공립농업학교에서의 수의학교육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수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다. 실업학교 규정의 의한 학교가 아닌 각도가 설립한 공립학교에서도 수의학을 강의하였으며, 축산학과에서도 수의학 강의가 축산학과목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볼 수 있다.

길주(吉州)공립농업실천학교는 1931년 도립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이 학교의 3학년 교과과정에 수의학대의라는 과목이 2시간씩이나 배정되어 있다. 나남(羅南)공립중학교도 함경남도 도립학교로서 3학년 때 축산각론, 4학년 때 축산각론과 축산범론, 그리고 5학년 때는 수의학대의와 축산제조학을 공부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의주(義州)공립농업학교도 도립으로서 이 학교는 농업과와 축산과를 두었는데 축산과는 사실상 수의축산과였는데 교과 과목표에는 축



(別表二)

畜産科學科目、學科課程及每週教授時數表

學科目	學年	第一學年		第二學年		第三學年		第四學年		第五學年	
	課程時數	時數	課程	時數	課程	時數	課程	時數	課程	時數	課程
修身		一	修身	一	同上	一	同上	一	同上	一	同上
公民科		一		一		一		二	公民	二	同上
國語		七	講讀、作文、習字	六	同上	五	講讀、作文、文法	五	同上	四	講讀、作文
朝鮮語及漢文		一	講讀、作文	一	同上	一	同上	一	同上	一	同上
數學		五	算術、珠算、代數	四	同上	三	代數、幾何	二	同上	一	三角法
物理及化學		一		二	物理	四	物理及氣象、化學	二	化學	一	
博物		三	動物、植物	二	同上	二	鑛物、地質、生理、衛生	一		一	
地理及歷史		四	日本地理、日本歷史	五	外國地理、外國歷史	一		一		一	
外國語		三	讀方、辭解、作文、習字	三	同上	二	讀方、辭解、作文、文法	二	同上	二	同上
體操		三	體操、教練	三	同上	三	同上	三	同上	三	同上
畜産獸醫學科目	農業大意	二	農業大意及耕種	二	耕種						
	耕種										
	畜産	一		一		二	畜産	二	同上	一	
	獸醫	一		一		七	生理及衛生、解剖及組織、繕鐵	一〇	病理、藥物及調劑、內科、外科	一五	同上農科及獸醫醫察
	農業經濟	一		一		一		一		一	農業經濟
實驗實習	計	二九		二九		三〇		三〇		三〇	
	時數	不定	實驗及實習	不定	時數	不定	時數	不定	時數	不定	時數

備考
一 農繁期ニ在リテハ第一、二學年ハ實習ヲ主トシ學科ハ學校長適宜之ヲ定ム
二 朝鮮語及漢文ハ國語ヲ常用セザル者ニ之ヲ課シ國語ヲ常用スル者ニハ朝鮮語ノミヲ課ス
三 外國語ハ英語トス

산수의학과목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학과의 교과과목을 보면 축산과 과목보다도 수의학 과목에 치중한 점이 있다. 3학년 때 축산 2시간, 생리 및 해부 조직과 제철이 7시간이며, 4학년 때는 병리 약물 조제 외과 내과 등이 10시간이며, 5학년 때는 병리, 약물, 조제, 내과, 외과, 산과, 수의경찰 등의 과목이 총 15시간이었다. 그러나 축산이라는 과목은 단지 3학년과 4학년 때 각 2시간이 고작이었다. 이를 볼 때 학과명이 축산과이지 수의학을 교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해방 전 까지 경성, 대구, 청주, 춘천, 제주, 함흥, 사리원, 의주 등의 전국 9개의 농림 농업학교에도 수의축산과가 증설되었는데 특히 의주공립농업학교가 역사를 이어와 축산과에서 수의축산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리농림학교나 의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면허증을 받지 않은 이상 무면허로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1937년도 조선수의사규칙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수의사면허시험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7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수의축산과를 정식으로 설치함으로서 수의사시험이라는 것과 면허증 제도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수년전에 배출한 수의학과 출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의사면허제도와 수의업 면허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을 것이고 더불어 다소 실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전통 우의들을 위해서 가축의생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졸업생들은 1937년 조선수의사규칙이 발효된 이후에 정식으로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일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의축산학과에서 사용한 교과서

194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수의축산과가 상당히 늘었다. 사리원 춘천 경성 함흥 이리 제주 청주 등지에 실업학교에서 수의축산과가 신설되었으며 사용한 교과서는 오늘 날은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것들이었다.

물론 필자도 196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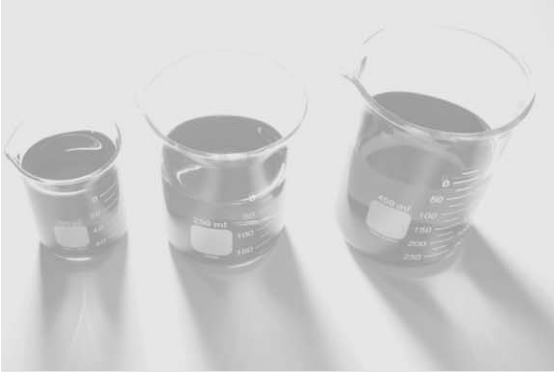
수의축산학과에서 사용한 교과서들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소
簡明 家畜解剖學	中田 醇	文永堂
教科用 家畜解剖學 上中下	大澤竹次郎 成松靜雄	中央獸醫會
家畜解剖組織學 上中下	大澤竹次郎	長隆社
家畜解剖圖 馬의 部 1. 2	田中宏 大澤竹次郎	中央獸醫會
比較組織學	大澤 川田	中央獸醫會
家畜生理學	松本一太	長隆社
家畜生理學 上下	深尾敬一 長谷正德	克誠堂
簡明 獸醫生理學	白井紅白	文永堂
家畜病理解剖學 上下	姜本修	克誠堂
家畜寄生蟲病學	板垣四郎	克誠堂
家畜傳染病學	中村哲哉	克誠堂
家畜藥理學 上中下	武藤喜一郎	克誠堂
獸醫藥物必攜	雙島幸人	克誠堂
簡明小藥理學	雙島幸人	文永堂
家畜處方集	雙島幸人	日本獸醫會
獸醫調劑學	武藤 内田	克誠堂
獸醫內科學 講本 上中下	武藤喜一郎 城井尙義	克誠堂
家畜內科學	勝島 新美	克誠堂
獸醫外科總論	松葉重雄	克誠堂
獸醫外科各論	松葉重雄	克誠堂
獸醫外科手術提要	磯山謙太郎	克誠堂
獸醫外科手術學	松葉重雄	克誠堂
實驗家畜外科手術學	小西要	克誠堂
家畜産科學	佐藤繁雄	克誠堂
獸醫産科學	牧野	克誠堂
家畜細菌學 及 免疫學	近藤正一	克誠堂
最新畜産教科書	草刈虎雄	克誠堂
畜産汎論 及 各論	衣川義雄	西ケ原刊行會
實業學校用 農業教科書	朝鮮總督府	西ケ原刊行會
畜産學教科書 汎論 及 各論	里正義	明文堂
蹄病學	松葉重雄	克誠堂
裝蹄學	村田庚午郎 津水新之阪	克誠堂
蹄鐵術教程	陸軍	
家畜眼科學	伊藤良作 森 友	克誠堂
朝鮮畜産關係 法規	朝鮮農會	

이들 책을 교과서 혹은 부교재로 사용하였다. 우리들 시대에는 수의축산학에 관한 우리의 책이 없었기에 교수들도 주로 일본의 것을 번역하여 프린트를 해서 수업하던 시절이었다.

표에서 보는 도서들이 당시 사용되던 교과서이다. 지금은 거의가 박물관에 가야할 책들인데 오늘날 50대 이상의 수의사들은 한번쯤 들었거나 읽어보았을 책들이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실업학교용 농업교과서와 조선 축산관련 법규집인데 전자는 청주 함흥 사리원 춘천등지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드 교과서 중 松葉重雄씨가 쓴 獸醫外科總論과 各論은 7개수의학과(청주 이리 춘천 함흥 사리원 경성 제주)에서 사용하여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 관보 2850호 광무8년 6월 11일 농상공학교관제
- 대한제국 관보 3545호 광무10년 8월 30일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관제
- 대한제국 관보 3557호 광무10년 9월 13일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규칙
- 대한제국 관보 3723호 광무 11년 3월 26일 농상공학교관제 폐지
- 대한제국 관보 4014호 융희 2년 3월 5일 수의속성과 학생모집광고
- 대한제국 관보 4393호 융희 3년 6월 3일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
- 조선총독부 관보 91호 명치 43년 12월 16일 농림학교규칙개정(수의속성과설치)
- 조선총독부 관보 명치 44년 10월 20일 호외 실업학교에서 농업학교의 범위
- 조선총독부 관보 416호 대정 2년 12월 17일 농림학교규칙개정(수의학대의삭제)
- 조선총독부 관보 629호 대정 3년 9월 5일 경상북도 농사강습회 상황
- 조선총독부 관보 807호 대정 4년 4월 15일 수의사의 순회진료실시 독려
- 조선총독부 관보 1381호 대정 6년 3월 14일 조선총독부 농림학교전문과규정
-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 7년 4월 1일 호외 수원농림전문학교규정
- 조선총독부 관보 2850호 대정 11년 2월 15일 실업학교규정
-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 11년 4월 1일 호외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
-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 11년 4월 1일 호외 조선총독부 제학교관제
- 조선총독부 관보 3470호 대정 13년 3월 11일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규정
-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 14년 4월 1일 호외 이리농업학교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 조선총독부 관보 1270호 소화 6년 4월 1일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학생모집
- 조선총독부 관보 1275호 소화 6년 4월 9일 의주공립농업학교 학칙

- 조선총독부 관보 1281호 소화 6년 4월 16일 길주농업실천학교 학칙
- 조선총독부 관보 1570호 소화 7년 4월 4일
- 조선총독부 관보 3072호 소화 12년 4월 17일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개정 수의축산과 신설
- 조선총독부 관보 3986호 소화 15년 5월 8일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개정 각과 학과목
- 조선총독부 관보 4867호 소화 18년 4월 26일 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개정 수의축산과목개정
- 조선총독부 관보 5220호 소화 19년 6월 30일 관립농업전문학교규정(수원농림전문학교)
- 조선 농업발달사 정책편 p265, 608~629 가축사양실태 조선총독부
- 조선 대정 11년 3월호 수원농림전문학교 전경사진 조선총독부
- 조선 대정 11년 10월호 p559 강원도 축우의 위생 조선총독부
- 중앙수의회잡지 40권(소화 2년) 8호 p840 총독부립 조선수의전문학교 설립계획
- 중앙수의회잡지 46권(소화 8년) 1호 p77 조선축산조합과 농회와의 합병
- 한국중앙농회보 3권(명치 42년도) 제4호 p61 농림학교졸업식 성황
- 조선농회보 9권 (대정 3년도) 제9호 p57 총독의 수원방문
- 조선농회보 11권(대정 5년도) 제1호 p98 농업기술관회의(수의강습회)
- 조선농회보 12권(대정 6년도) 제12권 p58 농 잠업 및 축산강습 전습상황
- 조선농회보 19권(대정 13년도) 제 8호 p43 충청남도(축산강습소) 권농일 상황
- 조선농회보 제5권(소화6년도) 제5호 p101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승인
-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8년 제1권 p188 수의축산강습회 개최
-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16년 3월 P0 1941년 조선농회 축산사업계획
-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 16년 3월 p24 축산수련소 제1회 수료상황
- 조선수의축산학회보 9권 10호 1941년 10월호 p30 실업학교 수의축산과 사용교과서
- 이리농림 익산대학 80년사(1922~2002), 이리농림 익산대학 총동문회 익산 2002년
- 이리농림동창회원 명부 이리농림동창회 익산 1982년
- 한국수의50년사 p337~340 대한수의사회 성남 1998년
- 荒井初太郎 朝鮮畜産協會概況 조선 181호(소화 5년) p67~72 조선총독부
- 原島善之助 韓國의畜産과獸疫 한국농회보(1907) 9월 p8~10, 10월 p5~7, 11월 p5~8
- 장 익선 北靑郡泥望只里産牛契狀況 조선농회보 20권(대정 14년) 제2호 p24~27, 조선농회
- 名倉 勝 朝鮮家禽共進會副業養鷄 조선농회보 20권(대정 14년) 제4호 p18~21 조선농회
- 오 성선 獸醫敎育의必要 조선농회보 4권(소화5년) 제3호 p70~71 조선농회
- 이 방환 수의축산반세기 p216~223 이방환박사 정년기념사업위원회 서울 1990년
- 신 광순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의 태동(1908~1946) p9 서울대수의과대학 60년